



디자이너라면 꼭 들러봐야 할, 전시 세 곳.

스위스 디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9월부터 12월까지 치러지는 디자인 전시 세 곳

실용주의 디자인이 발달한 스위스의 디자인 용품이 한 자리에

눈길 끄는 타이포그래피, 산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

이 기사, 얼른 실장님께 보여드리고 출장 일정 잡으세요

디자인은 한 나라의 생활 방식과 역사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으로, 가구, 생활 용품, 의류, 스포츠 도구, 보석, 가방, 책 등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한다. 바로, 사용자 및 소유자의 개성과 감각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통, 감자칼, 등산 지팡이, 에스프레소 기계, 기차역 시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글씨체까지 모두 스위스 디자인을 대표하는 아이템이다. 스위스 디자인은 높은 퀄리티와 정교함으로도 유명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편리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능성'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다. 유행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스위스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하기 때문에, 한 물건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주의적 디자인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기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창의성이 스위스 디자인의 기본인 것이다. 거기에 미적 감각까지 겸비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60년 전의 디자인이 현재에도 어색함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스위스인들이 창조해낸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인 디자인은 물론, 현시대에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디자이너와 디자인 업체,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신예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하반기에 속속 열릴 예정이다. 디자이너라면 직접 찾아볼만한 행사 세 곳을 소개한다.

1. 제네바(Geneva)의 디자인 데이즈(Design Days)

2017년 9월 28일 - 10월 1일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 모으는 전시로, 현대 아트와 젊은 디자이너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있다. 특히 전시가 열리는 공간은 과거 산업시대에 사용되던 공장을 개조한 곳으로,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큰 장소다. 올 해로 아홉번째 행사로, 4일 동안 다채로운 현대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신예 디자이너들과 이미 유명해진 브랜드들을 모두 둘러볼 수 있다. 테마가 있는 전시와 컨퍼런스, 원탁 회의 등도 진행된다.

www.designdays.ch

2. 빈터투어(Winterthur)의 디자인구트(Designgut)

2017년 11월 2일 - 5일

취리히(Zurich) 근교의 빈터투어에서 열리는 75개 이상의 디자인 레이블에서 패션, 가구, 액세서리, 쥬얼리, 세라믹 제품을 선보이는 디자인 전시다. 특히 디자인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이는 세일즈 페어로 유명하다. 진지한 디자인에 신선한 혁신을 곁들여지고 기능성과 단순성이 결합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워크플로우, 스토리텔링, 디자인 보호, 클라우드펀딩, 세일즈에 관련한 인터랙티브 워크숍도 열려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

www.designgut.ch

3. 루체른(Luzern)의 디자인쉐켄(DesignSchenken)

2017년 12월 1일 - 3일



3 일간 열리는 축제같은 행사로, 90 개 이상의 젊은 스위스 디자인 레이블이 그들의 제품을 선보인다. 시즌이만큼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할 수 있어, 루체른 시민들에게도 특별하고 인기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자리매김 했다. 디자이너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 행사가 열린다. 지난 8 년간 루체른 구시가지에서 열리던 행사로, 올 해부터는 루체른에서 기차로 5 분 거리에 있는 비스코시스타트(Viscosistadt)에서 열린다. 옛 산업지대에서 행사가 치러지면서 더욱 특별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designschenken.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